번뇌 물들지 않는 청정불성 '꽃 소식'

◇강진군 무위사의 목조아미타삼존 불좌상을 받쳐들고 있는 목조 연화대.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2 **연꽃**

"내가 연꽃을 사랑함은, 진흙속에서 났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이 비어 사심이 없고, 가지가 뻗지 않아 혼들림이 없다. 그 그윽한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그의 풍격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은 꽃 가운데 군자(君子)라 한다."

경생동안 연꽃을 사모했다는 중국 북송시대의 학자 주무숙은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이렇게 노래했다.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중 최고격인 연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은은한 향기, 고아한 품격, 그리고 더러운 진흙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인해 불교에서는 '보리심(菩提心)', '청정무구한 불성(佛性)'을 나타낸다. 즉 연꽃은 우리에게 탐진치 가득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청정한 불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준다.

인도 티벳지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 고르게 자생하고 있는 연꽃은 옛날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으로 애호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꽃 씨앗의 강한 생명력 때문이다. 실제로 천년 이상 땅에 묻혀있던 연꽃 씨앗을 근래에 발아시킨 예가 있을 정도로 연꽃의 생명력은 매우 강하다. 인도나 이집트 등에서는 연꽃을 국화(國花)로 삼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중 꽃공양에는 연꽃이 꼭 들어가며 부처님이 계신 법당의 단청은 물론 앉는 자리, 광배, 닫집, 문(門)에도 연꽃문양으로 장엄한다. 또한 극락세계를 연화세계라 하고 극락정토에 나는 것을 연화왕생이라 부른다. 부처님이 설법하고 나면 회상을 장엄하는 만다라화가 비처럼 흩뿌리는데 이 만다라화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연꽃이다. 또한 연꽃에는 정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연못에 연꽃을 심으면 연못의 더러움이 연꽃의 양분으로 흡수돼 물을 맑게 정화시켜 준다고 한다.

◇초파일 연꽃모양의 연등을 들고 제등행렬 하는 모습.

와당·단청등 생활과 밀접

연 등 사바세계 밝히는 진리 등불

염화시중 연꽃들며 지으신 부처님 미소

■ 연화장세계

연꽃중에 함장(含藏)된 세계라는 뜻이다. 이 세계는 비로자나여래의 과거의 원(願)과 수행에 의해서 꾸며진 세계이고 십불(十佛)이 교화(敎化)를 베푸는 경계라고 한다. 또 〈아미타경〉에서 연꽃으로 장엄된 아미타여래의 세계로 극락정토를 의미한다.

〈화엄경〉에서의 '연화장(蓮花藏)세계'도 부처님의 세계이며, 정토의 세계이다. 세계의 맨 밑에 풍륜(風輪)이 있고, 그 위에 향수해(香水海)가 있다. 이 향수해 속에 커다란 연꽃이 있는데, 이 연꽃속에 함장된 세계가 연화장 세계이다.

〈범망경〉에서의 이 세계는 천엽(千葉)의 대연화(大蓮華)로 부터 되고, 그 하나 하나의 잎에 백억의 수미산(須彌山)과 사천하(四天下) 등이 있으며 비로자나불은 그 본원(本源)으로서 화대(華台)의 위에 앉아 스스로의 몸을 변화시킨 천체(千體)의 부처님으로 나투어 삼지법문(心地法門)을 설한다고 나와 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석련지(국보 제64호). 통일신라시대.

■ 연등(燃燈)

우리나라에는 불교명절때 재(齋)를 올리고 연등을 밝히는 풍속이 있다. 등의 모양은 형형색색으로 여러가지다. 과실 모양, 연꽃 모양, 어류 모양, 동물 모양 등 그 종류가 많다. 등에는 '태평 만세', '수복' 등의 글을 쓰기도 하고, '기마 장군상'이나 '선인상'을 그리기도 한다. 그 중에서 연꽃 모양의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연꽃이 진흙속에서 사바세계로 박피어올라 붓다의 진리를 밝혀주고 그 진리를 온 법계에 전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

또 불교행사때 매달려 있는 여러 빛깔의 연꽃등은 제철에 만개한 연꽃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인상을 준다.

■ 연화대

불·보살이 앉아있는 곳은 큰 연꽃으로 만들었기에 화좌(華座), 연화좌(蓮華座), 연화대(蓮華臺)라고도 한다. 연꽃은 진흙에 나서도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덕이 있으므로 불·보살이 앉는 자리로 삼았다.

또한 부처님의 사리나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이나 부도를 받드는 받침석도 연꽃모양으로 만들었다.

■ 영화시중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묵묵히 연꽃을 들어보이자 모두들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가섭존자만이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그 뜻을 전해 받았다는 데서 유래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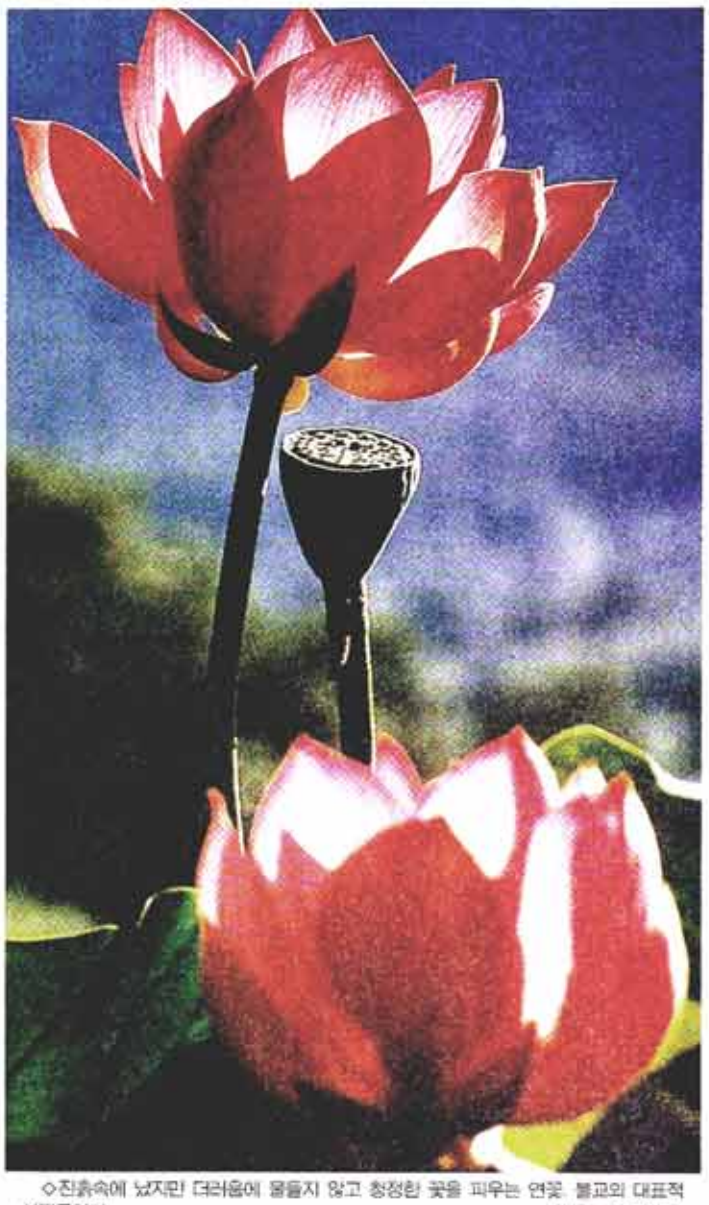
'염화미소'라고도 불리는 이 말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 이심전심으로 전법하는 것을 지칭한다. 실질적인 선종의 시발점이 된 '염화미소'는 중국 송대 이후 무언의 전법을 전달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 연화문

연꽃은 빛과 생명, 불교의 대자대비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조형화해 사찰 건축이나 외당, 불상의 대좌나 광배, 불상 조각, 단청, 불화, 불구(佛具) 등 불교 미술의 주요 문양으로 다양하게 쓰여왔다. 대표적인 예로 조계사 법당의 연꽃문과 삭당사 대웅전 연화문 수막새기와 등을 들 수 있다.

또 연꽃과 함께 원앙을 등장시켜 남녀, 길상, 행복 등을 상징하기도 하며 불교기와 합해 그려지는 경우는 광생을 통하여 재물이 풍부하여 모자람이 없고 정신적 여유가 항상 유지 되기를 바라는 '연년유여(延年有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진흙속에 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 불교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사진=선암스님〉

◇연꽃 문양의 백제와당.

◇법당의 천장이나 벽, 공포, 처마, 닫집 등의 단청에는 연꽃문양이 가장 많이 쓰인다. 내소사 대웅보전(보물 제291호) 천장의 연화문.

◇예산 수덕사 선방의 연꽃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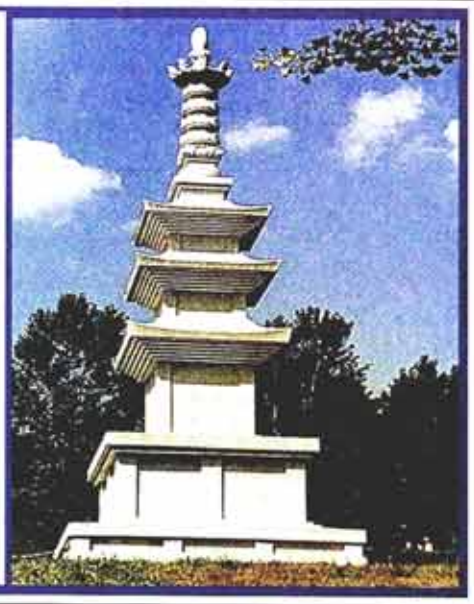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심세한 조각 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 성 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전 화 : 0357)31-8736 ■팩 스 : 0357)31-5549
■호 출 : 012)321-6044 ■핸드폰 : 011)284-5101



松江企劃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명상명곡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독경

내면의 울림 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ania!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찬·사
OMNI RECORD 옴니레코드
불교음반기획제작
불교 음악, 앨범 기획 제작.